

# 동방신기 또 '해체설' 소속사 "근거 없는 헛소문일뿐" 해명

입력 2009. 6. 26. 08:02 · 수정 2009. 6. 26. 08:02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해체설'이 또 부상, 소속사가 진화에 나섰다.동방신기는 6월25일 예정됐던 '2009 썸머 SM타운' 재킷 촬영을 돌연 취소,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동방신기가 해체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스케줄 취소는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문의 심각성에 최근 대책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동방신기의 결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해체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해체설은 전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최근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4집 활동에 이어 일본 활동을 이어가며 체력이 소진됐고 여기에 시아준수의 부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시아준수는 지난 5월 일본 공연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아레나투어를 펼치고 있다.

한편 동방신기는 2004년과 2006년에도 해체설이 제기된 바 있지만 역시 소문에 불과했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